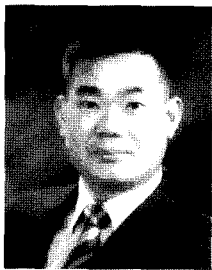


사육성적 15% 높이는 쉬운 방법(2)



유 재 석 협력소장
(주)TS해마로식품 충청지역

- 1월 동절기의 이상적인 육추실 꾸미기
- 2월 병아리 무게와 사육성적과의 관계
- 3월 환절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관리요소(1)
- 4월 사육성적 15% 높이는 쉬운 방법(1)
- 5월 초산 및 노계병아리 입추시 사양관리 방법
- 6월 출하시 중량체크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
- 7월 열사 및 무더위에 대한 대책
- 8월 환절기에 가장 중요한 관리요소(2)
- 9월 사육성적 15% 높이는 쉬운 방법(2)**
- 10월 질병발생을 사양관리로 극복하는 방법
- 11월 깔짚 종류에 따른 사양관리 방법(톱밥, 왕겨, 볏짚)
- 12월 육계사육 시 안전사고 유형과 대책

머리말

여름철의 더운 날씨로 인해 육계업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 특히 염려스러운 점은 종계관리가 더운 날씨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영향은 8월 이후 병아리 생산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8월 중순 이후 부화장에서 분양하는 병아리의 발생예상 숫자가 20% 이상 감소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니 관리자도 이점을 참조해야겠다.

지난 4월달에 「사육성적 15% 높이는 쉬운 방법(1)」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첫째, 초기폐사를 줄여라(급수기가 충분한가? 깔짚온도가 29℃ 이상 유지되었는가? 습도는 충분한가? 계분은 치웠는가?), 둘째는 7일령과 14일령에 약추를 강력히 도태한다. 셋째는 외출을 줄이고 농장을 가급적 비우지 않는다.

이런 상황들을 참조로 관리한 농장이라면 기

존 사육성적에서 어느 정도는 높아졌으리라 확신한다. 봄과 가을엔 특히 육계 사육환경이 좋아지는 시기임으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9월과 10월 역시 환절기면서 주야간 기온차가 심한 특성이 있지만 몇 가지 상황들을 점검해보면 사육성적을 15% 높이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첫째는 밀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소장콕시듬을 예방하는 방법, 셋째는 여름철의 무더위로 인해 영양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해주고, 마지막으로 점등관리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자.

1. 밀사예방

육계사육에서의 밀사개념은 단지 몇 평의 계사에 몇 수를 입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가령 A농장에서 200평 계사 1동에 10,000수를 입식했고, B농장엔 200평 계사에 9,000수를 입식했다면 평당 50수를 입식한 A농장이 밀사로 판단되겠지만 실제로는 계사의 단열수준, 관리자의 관리능력, 급수기의 종류와 개수, 급이기의 종류와 개수, 계사 폭과 길이, 출하중량, 열풍기의 종류와 용량, 환기시설과 용량, 깔짚의 두께, 계분의 품질과 깔짚의 종류, 인근농장의 질병상황 등 많은 요소에 의해 A, B농장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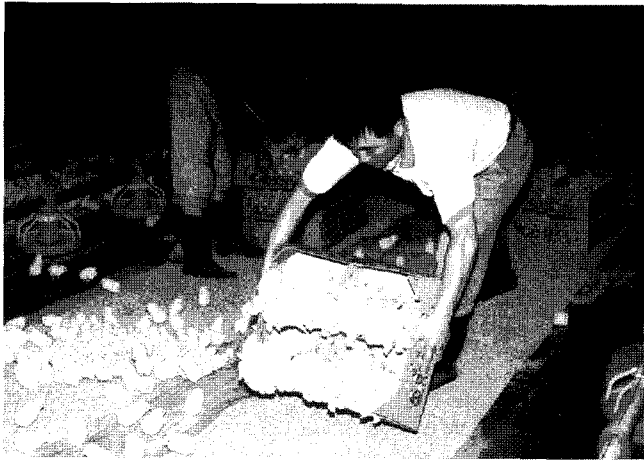
두 밀사일 수도 있고 밀사가 아닐 수도 있고, B농장이 밀사일 수도 있고 A농장이 밀사일 수도 있다.

계열화 업체의 사육수수료 체계가 연료비나 약품비가 입추수수에 의해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숫자를 무리하게 많이 넣게 되는데 이점은 수정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특히 겨울철은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숫자를 늘려서 입추하게 되는데 필자의 시험에 의하면 오히려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에는 입추수수를 줄이고 여름엔 무더위에 대한 조치만 가능하다면 입추수수를 늘려야 사육성적이 좋고 경제적이었다.

그간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사육규모는 평당 입추수수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말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되었다면 입추수수가 많을수록 좋지만 보완이 안된 상태에서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계사가 완전무창이 아니라면 평당 40수내외가 적당하고 사육을 하면서 서서히 평당 입추수수를 증가시켜줘야 되리라 판단된다.

일반사육(사계)을 하는 농장은 절대 입추숫자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 물론 시세에 의해 소득이 영양을 받고 있고 성적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일반사육 관리자는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다. 밀사를 하게 되면 초기폐사가 많고



층아리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깔짚두께가 얇으면 배와 관절에 상처가 나거나 수종이 발생하고 딱지가 진다. 또 밀사를 하게 되면 증체가 지연되고 닭이 약하며 암모니아가스 발생이 많아지며 산소가 부족되어 복수증이 발생한다. 점등관리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질병이 발생하기 쉽다. 현재 입추 숫자에서 5~10%씩 줄여서 입추해보자. 꼭 동물복지문제 때문만은 아니지만 사육성적이 웬지 잘 나올 것이다.

2. 콕시듐(소장) 클리닝

원충성 질병인 콕시듐은 알고 보면 육계업에 호흡기 다음으로 큰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그러나 호흡기 질병은 약으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콕시듐은 적절한 시기에 투여만 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질병이다. 보통 콕시듐은 혈변(피똥)이 보일 때 쉽게 눈

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약을 처방하게 된다. 이때는 맹장콕시듐으로 닭이 폐사를 하게 되는데 죽은 닭의 피부색을 보면 발랭이처럼 하얗게 죽는다. 이때 죽은 닭의 항문주위를 세게 눌러보면 피똥이 나오게 된다. 콕시듐으로 죽었는지 발랭이로 죽었는지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혈변이 보일 때는 이미 콕시듐에 의한 피해

가 심각해진 이후라는 것이다. 즉 콕시듐은 크게 소장 콕시듐과 맹장 콕시듐이 있는데 소장 콕시듐은 소장에서 콕시듐 원충이 기생하면서 닭의 소화를 떨어뜨리고 사료섭취량을 줄게 하며 깃털을 거칠게 하여 결국 증체가 지연되게 된다.

소장 콕시듐은 닭을 죽게 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주고 있고 이때 그냥 두면 5~7일 정도 지나 맹장콕시듐이 되어 닭이 하얗게 죽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파스 때 내 농장에 혈변이 보인 때가 25일령이었다면 18일령 정도에 콕시듐 예방수준으로 클리닝을 해줘야 한다. 지난 파스 사육 때 18일령에 혈변이 보였다면 13일령 정도에 콕시듐 예방수준으로 암프롤롬제제의 약을 투여해야 한다.

맹장콕시듐은 잘 알지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소장 콕시듐은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파스에 18일령 정도에 혈변이 보인 농장은 12~13일령에 부검을 해보자. 거의 100% 소장에 붉은 반점이 생겨있을 것이다.

3. 추가공급

올 여름철은 지난해에 더위가 약해서 그랬는지 몹시 덥게 느껴졌던 시기였다. 사실 무더위로 종계나 육계나 열사피해가 많았었다. 누구나 예상하는 문제지만 더위로 인해 종계는 충분한 사료섭취가 어려웠을 것이고 영양적으로도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종란을 낳았을 때 병아리에게도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요즘 입추를 해보면 알겠지만 병아리들이 성장이 늦거나, 층아리가 발생하거나, 약추가 많거나, 관절이상 병아리가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되는 병아리들을 다 없앨 수도 없고 사육을 해야 하는데 농장마다 1~2개씩은 사료나 물에 영양제나 생균제, 유산균제 등을 추가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영양적으로 부족되기 쉬운 병아리들에게, 특히 요즘 입추되는 병아리에게는 출하 때까지 영양제와 전해질 제제를 사료나 물에 혼합해서 꾸준히 공급하고, 관절이상이 있는 계군은 칼슘제를 3~4일 공급해 주길 권장한다.

4. 점등관리

점등관리는 무창계사에서는 24시간 환경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개방계사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관리자가 농장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증체나 사료효율 면에서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물론 출하일령도 단축된다.

입추당일부터 12일령 전후까지는 최대한 밝게 해준다.

조도로 따지면 20Lux 이상이어야 하는데 어두우면 층아리가 많이 발생한다. 12일령 전후 지나 일령이 지나면서 조금씩 어둡게 해주기 시작해서 25일령 이후부터는 5Lux 정도로 계사 전체를 어둡게 해서 닭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물론 충분한 급수, 급이, 환기시설이 병행 구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점증 점등법이고 간헐 점등법처럼 낮에 환하게 뒀다가 밤 10시 정도에 불을 켜주고 새벽 2시에 불을 꺼줘서 재웠다가 새벽 5시에 켜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급이, 급수,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적용해야 한다. 시간은 농장마다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응용해서 활용하면 된다. C

· 문의 : 011-217-5972 유재석